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그 빵집이들은 지금 어디에



송병준_ 서울대 교육학과 73학번. 전국민주노동자연맹·민중화운동청년연합·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주간노동자신문 등에서 활동, 변호사(한빛종합법률사무소)원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나는 바늘로 찌르는 아픔 없이는 짧은 날을 회상하기 어렵다. 나의 20대는 2년간의 대학생활과 2년 간의 감옥살이, 그리고 뒤이은 3년간의 군대생활, 1년반 동안의 공장생활, 다시 2년간의 감옥살이로 어어지며,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때로는 굴곡을 겪으며 흘러간 것 같다.

긴급조치9호가 선포된 지 9일 만에 그에 정면으로 거스르며 유신헌법 철폐를 외쳤던 1975년의 5·22시위는 분명 박정희 일당을 아연실색케 했을 것이다. 아무리 틀어막으려 해도 틀어막을 수 없는 거센 물줄기처럼.

이제 생각해 보면, 1975년의 사건들은 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 어떤 서광을 비추는 것과 동시에, 음울한 암흑을 더욱 짙게 드리우기도 했다. 그만큼 깊은 굴곡을 그리며 희비가 엇갈리는 속에서 격동하던 시절이었다.

75년 4월 30일, 베트남전이 16년 만에 막을 내렸다는 소식은 민족해방운동의 전도를 밝게 기약해 주는 것 같았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선배들이 10여 개월 만에 석방되었던 것과 재야인사, 학계, 종교계를 망라하여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되어 반유신헌법전

선이 형성되었던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박정희는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체제를 굳혀보려 하였으나, 1975년 3월 말부터 각 대학에서 유신철폐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박정희는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박정희는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다음날인 4월 9일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고려대를 무기한 폐쇄한다는 긴급조치7호를 발동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이 휴교 중인 5월 13일 긴급조치9호를 발동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일체의 언동이나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였다.

긴급조치9호는 ①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②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③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④심지어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까지 금지하였다.

고3 시절 10월 유신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으나, 나는 단지 과도한 경쟁과 억압적 통제가 지긋지긋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입시에서 해방된 후 한동안 아무 일 없이 빈둥거리며 홀로 사색에 빠지는 것을 좋아했다.

학문을 하여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교사나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인이 된다는 것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것에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 자신의 정서적 취향 때문에 고교 시절의 연장인 교양과정부 생활이나 판에 박힌 커리큘럼, 교련 등에는 크나큰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역사의식이 형성되면서, 유신체제는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굴욕이자 억압의 굴레였고 우스꽝스러운 희화이기도 했다.

1, 2학년 을 거치면서 서울대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선배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반유신헌법 데모에도 참가하면서 타고난 반골기질이 덧붙여 열정에 점화가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인혁당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긴급조치9호가 선포되자, 유신체제라는 거대한 바위를 깨뜨리는 돌멩이가 되고 싶었다. 비록 그 앞에 부서져 내리더라도 무수한 작은 돌멩이로 던져져 마침내 바위를 깨뜨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바위는 끄떡 없지만 너만 깨질 뿐이라고.

나는 5월 22일 시위로 첫 감옥살이를 하였고, 그 와중에 내가 살과 피를 받은 어머니를 여의었다. 5월 22일을 준비할 때 노광진에 있던 우리 집은 사대생들의 아지트가 되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미혼이던 누이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웠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간 지 두어달 만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에는 아직 병명을 알지 못하였고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족들 중 누구도 면회를 오는 사람이 없던 8월 어느날, 마침내 누이가 면회를 와서 그 소식을 전했다. 나는 빈한한 조각인의 딸이었고, 제사공장 노동자였던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하며 외롭고 힘들 때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의지할 데 없었을 어머니를 생각하곤 한다.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데는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걸렸다. 긴급조치9호 시대, 박정희와 그 하수인들의 탄압과 봉쇄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인혁당 사건으로 손에 피를 묻힌 그들은 마치 미친 백정처럼 6백명을 잡아 가두었다. 설마 학생들이 데모 한번 했기로서니 2~4년씩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 있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그때에는 만기가 될 때까지 꼬박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부모가 돌아가셨는 데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판사와 교도소 당국은 법정이나 교도소 내의 소란을 이유로 추가형을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심지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강제징집을 하여 다시 사회와 격리시켜려 하였다. 사실 나는 정신적 여유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쫓병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기억된다.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젊음을 철저히 짓밟고 묶어 놓으려 했던 것인데 감옥과 군대생활을 겪으며 나의 반골기질은 더욱 굳어졌던 것 같다. 무자비한 폭압은 오히려 자유에의 의지를 더욱 단련시켰다고 할까.

그만큼 많은 책을 읽었던 적이 다시 없었고, 동료, 선배들과 그렇게 가깝게 살을 비비며 함께 부대졌던 적도 다시 없었다. 이제는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서울구치소 감방벽에서 점프 하던 빈대들은 어디로 갔을까. 간헐자들의 시샘을 받으며 사동 앞을 활보하던 쥐새끼들은 지금도 비둘기들과 함께 잘 살고 있을까.

쇠불알영감이라 불리던 늙은 빵쟁이는 결국 모락산 어느 산자락엔가 묻혔겠지만, 뺨따기 젊은 빵쟁이는 지금도 어느 감방에선가 푸른옷에 실려간 청춘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40대가 될 때까지도 간혹 다시 감옥이나 군대에 끌려가서 시달리는 악몽을 꾸는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내 인생의 봄날이었고 그 시절의 고통과 고뇌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히려 더욱 길게 기억될 것 같다.